

## Exploration of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Music Curriculum through Analysis of Music in the Integr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Pleasant Life’

Yang, Soh Yeong<sup>1)</sup> (Seoul ShinYongsan Elementary School, Teacher)

---

< ABSTRACT >

---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ssibilities and potential future directions for music curricula by analyzing music courses with the goal of improving music in the integr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Pleasant Lif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nce curriculums or achievement criteria are suggested as topics, an author’s intention has an influence on the direction and level of a textbook. Second, because music activities are not clearly described, they are not helpful for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hird, music activities are stated in all achievement criteria so that there might be a preconception of ‘integration for integra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can be se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integrated meaning of individual courses, focusing on each curriculum. Second, the theme-centered trans-disciplinary approach that selecting a theme or questions is an exploring process with interest, should not be considered without academic presupposition or classifi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of each course such as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each curriculum. While most researchers have insisted that the stage from young childhood to around age 10 is a critical period to improve musical capabilities, music curricula in ‘Pleasant Life’ are just a means of integration without any chance for students’ musical growth and improve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intensive research on integrated curricula and continued studies on future directions and knowledge connectivity of individual courses from multiple aspects.

**Key Words** : Integr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pleasant life, music course, textbook

---

---

1) Corresponding Author: Yang, Soh Yeong, Teacher, Seoul ShinYongsan Elementary School, 255 Ichon-ro, Yongsan-gu, Seoul, Korea, 04423 / E-mail: [pianosysy@sen.go.kr](mailto:pianosysy@sen.go.kr)

##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을 통한 음악과 개선 방향 탐색

양소영<sup>1)</sup>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교사)

---

### < 요약 >

---

이 연구는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내 음악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지도서의 음악 내용을 분석하여 음악 교과 관점에서 해결 방안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로 첫째, 교육과정이나 그 성취기준이 주제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집필진의 의도가 교과서의 방향이나 수준 등을 좌우한다. 둘째, 음악 활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모든 성취기준에 음악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통합을 위한 통합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교과의 통합적 의의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주제 중심 통합의 탈 학문적 접근이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지 학문의 전제나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개별 교과의 학문적 특징과 발달상 차이 등 각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교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아부터 10세 전후를 음악 능력 향상의 결정적 시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즐거운 생활’의 음악 내용은 통합을 위한 수단일 뿐 어린 이 음악 성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앞으로 통합교과교육과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나아갈 방향, 개별 교과의 지식 연계성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음악, 음악 교과, 교과서

---

---

1) 교신저자: 양소영, 교사, (0442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55, 서울신용산초등학교 / E-mail: [pianosysy@sen.go.kr](mailto:pianosysy@sen.go.kr)  
논문투고일자: 2020. 2. 12 / 심사일자: 2020. 2. 13 / 게재확정일자: 2020. 3. 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 누리과정 이후 초등학교 1·2학년에서 통합교과교육과정을 취하며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교과로 하는 '즐거운 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교과 중심으로 분권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이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과 유리되고 현재와 미래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Ohn, 2013).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가 처음 등장한 제4차 교육과정은 별도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음·미·체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교과서만 즐거운 생활로 편찬되었으나 점차 기존의 일반 교과와는 독립된 별개의 교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as cited in Park, 2015). 우리나라 통합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학년 위주의 통합교과교육을 실행했으며 그 이후 2009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Drake의 KDB모형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의 탈 학문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Ohn, 2013).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의 탈 학문적 접근을 취하면서 영역-핵심개념-일반화된 지식-내용 요소-기능의 내용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교육학자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Gordon(2003)은 새끼 고양이의 눈 위에 가리개를 덮어 놓고 그 덮개가 몇 주 후까지 제거되지 않으면 그 동물은 평생 눈이 멀게 되는 것과 같이 어린이가 결정적 시기에 음악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 무시되어진 감각은 평생을 통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고든은 어린이들이 저학년 시기에 많은 양의 음악을 듣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학습이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후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인 Howard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지능(Ham, 2007)은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이해 지능, 자연탐구 지능의 8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음악적 지능'을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헝가리의 음악교육자 Kodaly는 그의 책에서 음악교육은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3세~7세 사이에 음악 청력과 감상력이 극대화되고 7~10세까지 집중적인 음악교육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음악적 성장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2015)은 2015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쟁점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제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개별 교

과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과 통합교육과정에서의 개념적 지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Kim(2018)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음악학습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교과서의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즐거운 생활’ 내에서 음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Kim(2018)은 분과 교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통합이나 융, 복합을 무조건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분과 교과를 보완하여 학습자가 사고의 통합을 이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즐거운 생활’의 음악 부분은 통합교과가 시작된 제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 교과에 관한 내용이나 연계를 중시하기보다는 공통 주제 중심을 위한 수단적 의미가 더욱 강해져 왔다(Kim, 2018; Park, 2015). 이는 음악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결핍이자 음악 교과의 학문적 취지와도 동떨어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통합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 과정을 통해 음악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초등 통합교과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통합의 의미 및 음악 교과의 특징을 기술한 후 주제와의 관련성, 제재곡 및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활동 분석, 3학년 음악 교과와의 연계를 파악하여 음악 교과 관점에서 그 개선 방안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초등 통합교과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을 통해 음악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연구로,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주제 중심 탈 학문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제에 대해 ‘사고’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 교과만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보고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에 있어 음악 활동이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졌는지, 제재곡은 어떠한지,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마지막으로 3학년 음악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비교

2015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백워드 설계, 즉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그것을 하는 결과로써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Ohm, 2013). 우리나라 통합교과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대부분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2009 개정(MOE, 2011)과 2015 개정 통합교육과정(MOE, 2015)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시기별 통합교과교육과정에 따른 1, 2학년별 교과서 구성 체제는 <표 1>과 같다.

<표 1> 두 시기별 초등 통합 교과서 구성 체제 비교

대주제	2009 개정		대주제	2015 개정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학교와 나	학교 1-1	나 2-1	학교	봄 1-1	봄 2-1
봄	봄 1-1	봄 2-1	봄		
가족	가족 1-1	가족 2-1	가족	여름 1-1	여름 2-1
여름	여름 1-1	여름 2-1	여름		
이웃	이웃 1-2	이웃 2-2	마을	가을 1-2	가을 2-2
가을	가을 1-2	가을 2-2	가을		
우리나라	우리나라 1-2	우리나라 2-2	나라	겨울 1-2	겨울 2-2
겨울	겨울 1-2	겨울 2-2	겨울		
8개 대주제	8권	8권	8개 대주제	4권	4권

\* Jo(2017) reference

2009 개정 통합교과는 8개 대주제를 가지고 1, 2학년 학년별 각 8권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 개정 통합교과는 8개 대주제는 동일하나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 학년별 4권씩으로 권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2009 개정에서는 8권에서 매 학기 4권씩이던 교과서가 2015 개정에서는 학년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권으로 학기별로는 2권으로 간소화되었다. 각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두 시기별 통합교과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영역과 내용 체계 비교

대주제	2009 개정		영역 (대주제)	2015 개정	
	소주제	활동 주제		핵심개념 (소주제)	내용 요소
학교와 나	· 학교생활 · 나와 친구 · 봄 · 나의 꿈	· 학교 놀이하기 · 친구와 놀이하기 · 봄 표현하기 · 나의 꿈 표현하기	학교	학교와 친구	· 친구와의 놀이 · 교실 꾸미기
				나	· 나의 몸, 감각, 느낌 표현 · 나에 대한 공연, 전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맞이</li> <li>· 새싹</li> <li>· 봄 날씨와 생활</li> <li>· 봄나들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교실 꾸미기</li> <li>· 새싹 표현하기</li> <li>· 봄 날씨를 주제로 놀이하기</li> <li>· 봄나들이 가기</li> </ul>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봄맞이</li> <li>봄 동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느낌 표현</li> <li>· 집 꾸미기</li> <li>· 동식물 표현</li> <li>· 봄나들이</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li> <li>· 가족</li> <li>· 친척</li> <li>· 다양한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 표현하기</li> <li>· 가족과 함께하기</li> <li>· 가족 소개하기</li> <li>· 다양한 가족 문화 표현하기</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친척</li> <li>다양한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마음 표현</li> <li>· 가족 활동 및 행사 표현</li> <li>· 집의 모습 표현</li> <li>· 가족 역할놀이</li> </ul>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풍경</li> <li>· 곤충</li> <li>· 여름 날씨와 생활</li> <li>· 여름 방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느끼기</li> <li>· 곤충과 식물 표현하기</li> <li>· 여름 축제 열기</li> <li>· 물놀이하기</li> </ul>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맞이</li> <li>여름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느낌 표현</li> <li>· 생활도구 장식·제작</li> <li>· 여름 동식물표현</li> <li>· 여름철 놀이</li> </ul>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li> <li>· 가게</li> <li>· 우리 마을</li> <li>· 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생활 표현하기</li> <li>· 가게 놀이하기</li> <li>· 우리 마을 자랑하기</li> <li>· 직업 놀이하기</li> </ul>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이웃</li> <li>우리 동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모습과 생활표현</li> <li>· 공공장소 시설물 활용 놀이</li> <li>· 동네모습 표현</li> <li>· 직업 놀이</li> </ul>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li> <li>· 낙엽과 열매</li> <li>· 가을 날씨와 생활</li> <li>· 가을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놀이하기</li> <li>· 낙엽과 열매로 표현하기</li> <li>· 가을 풍경 표현하기</li> <li>· 가을행사에 참여 하기</li> </ul>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을맞이</li> <li>가을 모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을의 모습과 느낌 표현</li> <li>· 가을 놀이</li> <li>· 민속놀이</li> <li>· 낙엽, 열매 표현</li> </ul>
우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상징</li> <li>· 전통문화</li> <li>· 이웃나라</li> <li>· 남북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상징 표현하기</li> <li>· 전통문화 체험하기</li> <li>· 문화알리미 놀이하기</li> <li>· 통일전시회 열기</li> </ul>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li> <li>다른 나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상징 표현</li> <li>· 남북한의 놀이, 통일에 대한 관심 표현</li> <li>·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 즐기기</li> <li>· 문화 작품, 공연 감상</li> </ul>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맞이</li> <li>· 동물</li> <li>· 겨울날씨와 생활</li> <li>· 겨울 방학</li> <li>· 한해를 보내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겨울 보내기</li> <li>· 동물 표현하기</li> <li>· 겨울풍경 표현하기</li> <li>· 겨울 놀이하기</li> <li>· 나의 한 해 표현하기</li> </ul>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울맞이</li> <li>겨울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 느낌 표현</li> <li>· 놀이 도구 제작</li> <li>· 동물 흉내 내기</li> <li>· 겨울철 신체 활동</li> </ul>

앞서 살펴본 대로 교과서 구성은 1, 2학년 각 학년 당 8권에서 4권으로 줄었으나 ‘즐거워 생활’ 내용 체계에서는 두 시기 모두 8가지 대주제와 다소 간략해진 소주제로 되어있고 활동 주제가 내용 요소로 바뀌었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2009 개정의 소주제를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여 2015 개정에서는 두 주제로 간략히 나타내었고, 활동 주제도 나열식의 ‘활동 중심’ 서술에서 ‘내용 요소’ 위주의 서술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통합교과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창의적 사고 역량·의사소통 역량이 제시되어 있고 내용 체계는 영역(대주제)-핵심개념(소주제)-일반화된 지식-내용 요소-기능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 통합교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분석 결과 모두 주제 중심으로 나타나 있어 음악 교과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3학년 이상의 음악 교과와 달리 집필진의 의도가 교과서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 집필진의 판단과 교과 이해 정도에 따라 음악 교과의 수준이나 내용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사고'의 통합

우리나라 통합교육과정, 통합교과에서의 '통합'은 대부분 주제 중심 교과의 통합을 위주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을 일컬어 왔다. 그러나 Ohn(2013)은 통합교육과정은 교과통합, 주제 중심 통합과 같이 종종 사용되지만, 그와 동일어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통합'이란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관련짓는 것이 가능한 깊은 이해 즉 일반화나 원리와 관련짓는 정신적 활동이라 강조하면서 사고의 효과적인 통합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im(2018)은 교과나 교육 내용의 외적 통합이 아닌 '사고의 통합' 또는 '교육 내용의 내면화'를 언급하면서 여러 과목을 각기 다른 수업에 다른 교사로부터 배운 것이라도 결국 그것들은 같은 학습 주제인 학생의 마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제4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교육과정까지 대부분 교과 통합, 교육과정 통합, 주제 중심 통합 등이 시도되어왔다. 위의 김승호 견해와 같이 무조건적인 통합의 강조, 융·복합의 강조가 지금까지 3학년부터 시행하는 분과 교과에 비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Park, 2015; Kim, 2018). 이에 비해 사고의 통합은 통합교과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찌 보면 충실한 분과 교과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교과의 원천은 분과 교과이다(Kim, 2018). 다양한 분과 교과를 배우게 됨으로써 생각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다양한 사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분명한 경험으로 구분되어 성장하게 된다.

2015 개정 통합교육과정의 바탕이 된 이해중심 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 전이를 통한 '통합적 이해'나 '사고의 통합'은 주제 중심 통합교과를 강조하는 현 체제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하나의 교과에서 만들어진 사고가 다른 교과나 지식에 전이되어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시각들이 모여 기존의 생각들과 합쳐지면서 다른 교과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 여러 내용을 폭넓게 인지하고 생각의 깊이가 점차 통합된 사고로 바뀌게 되는 이치이다.

### 3. 음악적 발달

피아제(Seog, Choi, Ham, & Kwon, 2010)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네 단계의 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며 발달 속도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음악교육에 적용한 Zimmerman(Seog et al., 2010)은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든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직접 경험이나 구체적 사물을 통한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특징의 음악경험이 중요한 시기이며 음악 개념 중심 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그는 어린이의 음악적 사고에 있어 음악적 개념(Lee, 1996)은 셈여림→ 음색→ 빠르기→ 음길이→ 음높이→ 화음 등이 차례로 형성되고 음악적 발달에 있어 정체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음악교육자 Gordon(2003)은 음악 적성이 9세 즈음에 고정되기 전 아이의 음악 교육 환경 영향에 의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출생 후부터 9세가량까지는 발전적 음악 적성 단계라 하고 9세 이후를 고정적 음악 적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발전’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로 이때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으로 학생들의 음악 수준을 마음껏 끌어올릴 가능성의 시기이고 ‘고정’은 짐머만이 언급한 정체기로서 더 이상의 변화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로 상승 곡선이던 그래프가 수평 곡선으로 정지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든은 아이들이 발전적 음악 적성 단계에 있는 9세까지 좋은 음악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평생의 음악 적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Kodaly(as cited in Lim, Hyun, Jo, Kim, & Lee, 2009)는 그보다 더 앞선 3~7세 사이 유아교육을 그 이후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시기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없고 사람의 음악 발달은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은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약 10년간의 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음악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는 유치원 시기에 유아 음악 교사 양성이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적인 음악교육 기관을 찾기 어렵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음, 미, 체 통합교과로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다.



각 교과마다 고유한 특성과 이를 길러주기 위한 발달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예술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더욱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Ⅲ.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

주제 중심 탈 학문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통합교과 중 '즐거운 생활(MOE, 2017)' 내 음악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 활동이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졌는지 주제 중심 연관성을 살펴보고 교과서 제재곡에 대한 악보 형태와 박자의 종류, 관련 기악 활동 등도 검토해 본다. 또한,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3학년 음악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 1. 주제 중심 연관성

You & Kim(1998)은 주제 중심 통합교과의 전개 방법으로 문제 사태 중심의 통합, 화제 중심의 통합, 교과내용 중심의 통합,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통합을 들고 있는데 현 교과서는 삶에 가까운 토픽(topic)이라 불리는 '화제 중심의 통합'에 가깝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활동들이 음악 중심의 가창·기악·창작·감상 영역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분석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교육과정의 1학년 '즐거운 생활' 음악 활동 내용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학년 '즐거운 생활' 주제 중심 음악 활동 분석

교과서	영역 (대주제)	음악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봄	학교	'안녕' 노래 부르기, '어깨동무' 노래 부르기, '봄이 왔어요' 노래 부르기, '별아 별아 꽃떠라' 노래 부르기,	5	·	·	·
	봄	'쑹쑹 자라라' 노래 부르기				
여름	가족	가족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장단 맞추어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해를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 노래 듣고 느낌 나타내기, '구슬비'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며 부르기	4	2	·	1
	여름					

가을	마을	‘버스놀이’ 노래 부르기, ‘정다운 이웃’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기, ‘핑핑 장서방’ 노래 부르고 노랫말 바꾸기, ‘추석날’ 노래 부르기, ‘파란가을하늘’ 노래 부르기, ‘잠자리 쫓쫓’ 노래 부르기, ‘달두달두 밝다’	6	1	.	.
겨울	나라	‘남생아~’ 노래 부르기, ‘아름다운 나라’ 노래 부르기, ‘파주다리빼기, 황해도 다리빼기 하며 노래 부르기, ‘비행기’ 노래 부르기, ‘꼬마눈사람’ 노래 부르기, ‘사랑의 마음’ 노래 부르고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6	.	.	.
비율	총 25곡		84%	12%	.	4%

주제와 관련된 1학년 ‘즐거운 생활’ 음악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음악 학습은 주제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주제인 ‘학교’에서는 ‘안녕’, ‘어깨동무’ 노래 부르기, ‘가족’ 단위에서는 가족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 등 주제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역별 분포에서도 위와 같이 가창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래를 들으며 신체표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나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등 창작 영역도 수준에 맞추어 얼마든지 교과서에 구현될 수 있고 감상, 기악 영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1학년 교과서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교과서 활동에는 음악 내용이 없는 ‘약속을 해요’ 지도서를 살펴보면 꼭꼭 약속해, 우리는 친구, 모두 제자리 등의 노래가 제시되고 ‘새싹과 꽃’ 에도 나비 노래 등 놀이를 위한 참고곡이 많이 제시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이 다른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표 4>는 2학년 ‘즐거운 생활’ 음악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2학년 ‘즐거운 생활’ 주제 중심 음악 활동 분석

교과서	영역 (대주제)	음악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봄	학교	앞나 빠진 경험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몸이나 소고로 장단 치기, ‘나의꿈’ 노래 부르기, ‘봄아 어디까지 왔니’ 노래 부르기와 소고치기, 노랫말 바꾸기, ‘봄비’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4	3	.	.
여름	가족	‘우리집’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율동 만들기, ‘대문놀이’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 치기, ‘달팽이집’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치기, 노랫말 바꾸기, ‘매미의 노래’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악기 만들기, ‘울챙이와 개구리’ 율동 만들기, ‘두꺼비 집이 여름까’ ‘수박장수’ 들고 따라 부르기	6	2	2	.

가을	마을	'우리 동네 한바퀴' 노래 부르기 와 악기 연주하기, '목도소리' 노래 부 르기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장사꾼 노래' 노래 부르기, '가을바람' 노래부르기, '왕도토리' 노래 부르고 장단 치기, '가을은' 노래 부르기	6	3	1	.
겨울	나라	'세계여행' 노래 부르기 와 일정박 치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며 부르기, '세계의 아침인사' 노래 부르기, 세계 민요 노래 부르기 와 악기 연주하기, 율동하며 부르기, '봄을 기다리며' 노래 부 르기와 리듬치기, '소리개 뗏다' 노래 부 르기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5	1	2	.
비율		총 35곡	60%	25.7%	14.3%	.

1학년보다는 가창, 기악, 창작이 영역별 차이가 작게 나고 있으나 감상 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주제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 활동이 많았다. 활동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봄비'는 리듬악기인 탬버린과 캐스터네츠만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연주하는 것인지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가 지도서를 찾아야 알 수 있었다. 2학년 1학기 '달팽이집'도 '일정박 치기'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어떻게 치라는 것인지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학생이 교과서만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박 장수'는 듣고 따라 부르기가 학습활동인데 지도서에는 주고받으며 노래 부르기, 노랫말을 그림으로 그리기 등 도움 자료가 아닌 본 차시 활동과 상관없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 학습활동과 지도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기악 연주가 25% 정도는 실려 있으나 대부분 주요 리듬꼴을 쳐보는 활동이나 일정박 치기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단한 리듬 반주나 리듬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 2. 제재곡 분석

제재곡은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으로 음악 활동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제재곡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음악 활동에 대한 예측과 수업의 수준 등을 가늠해 볼 좋은 기회가 된다. 제재곡 분석 기준은 <표 3>, <표4>와 같이 창작, 감상 영역은 교과서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악보 형태와 제재곡의 박자, 제재곡에 따른 기악 활동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 <표 5>는 1~2학년 '즐거운 생활'에 제시된 제재곡의 악보 형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1, 2학년 ‘즐거운 생활’ 제재곡 악보 형태

		1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악보 형태	안녕(두줄악보), 어깨동무(정간보), 봄이왔어요(세줄악보), 쓱쓱 자라라(한줄악보)	우리집은 웃음바다(세줄악보), 우리형제(정간보), 해야해야나오너라(정간보), 구슬비(세줄악보)	버스놀이(한줄악보), 펑펑장서방(정간보), 추석날(세줄악보), 과란가을하늘(세줄악보), 잠자리뽕뽕, 달두달두 밝다(정간보)	남생아놀아라(정간보), 애국가(그림악보), 아름다운나라(세줄악보), 파주다리빼기, 황해도다리빼기(정간보), 비행기(한줄악보), 꼬마눈사람(세줄악보), 사랑의 마음(한줄악보)	
		2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악보 형태	앞니빠진 중강새(정간보), 나의꿈(세줄악보), 봄아 어디까지 왔니(정간보), 봄비(두줄악보)	우리집(글), 대문놀이(정간보), 달팽이집(글), 매미의 노래(오선악보), 울챙이와 개구리(글), 두꺼비 집이(정간보), 수박장수(글)	우리 동네 한바퀴(글), 목도소리(정간보), 장사꾼노래(정간보), 가을바람(오선악보), 왕도토리(그림악보), 가을은(오선악보)	세계여행(정간보), 세계의 아침인사(오선악보), 세계의 민요(글), 봄을 기다리며(오선악보), 소리개 떴다(세줄악보)	

‘즐거운 생활’ 제재곡에 오선 악보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색깔로 음높이의 높고 낮음을 표현한 악보, 그림 길이로 음가를 표시한 악보 등 그림과 색으로 오선보를 대신한 그림 악보와 한 줄부터 세 줄까지의 선으로 나타난 악보가 제시되고 있다. 대신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애국가는 선이 생략된 채 그림으로만 나타나 있어 이는 굳이 음높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가 어려운 오선 악보 대신 그림 악보나 한 줄, 두 줄, 세 줄로 만들어진 악보를 저학년에 제시하는 것은 악보 이해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악보가 오선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지, 오선보가 친숙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굳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 줄, 두 줄 악보 또는 정확하지 않은 색 음높이의 제시가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악보는 음가를 대부분 그림 길이로 표현하고는 있으나 ‘쓱쓱 자라라’와 같은 점음표가 나오는 박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음높이 또한 같은 색으로 나타내고는 있으나 저학년용이라고 보기에 는 도형 크기가 작고 가락선만 제시한 악보도 있어 통일성이 떨어진다.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우리집’, ‘달팽이집’ 제재곡은 악보가 제시되지 않고 국어의 ‘동시’와 같이 글로 표현되어 있어 학년 연계 상 1학년에 제시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2학년 ‘매미의 노래’가 오선 악보로 처음 등장하는데 정작 악보 구성이 2학년 학생들에게 쉽지 않다. 점음표와 쉼표, 2분음표가 등장하고 길어도 16마디 두도막 형식으로 되어있어 이 곡보다는 ‘가을’에 나오는 ‘가을바람’이 악보 구성상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소리개 떴다’는 전래동요지만 1, 2학년 교과서 전체에서 정간보가 아닌 세줄 악보로 나타나는 점도 특이하다. 제재

곡의 박자와 그에 따른 기악 영역을 분석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1, 2학년 제재곡의 박자 및 기악영역 분석

1학년							
교과서	박자			국악	기악		
	4박	3박	2박		악기 학습	리듬합주	등장 악기
봄	안녕, 쭉쭉 자라라	봄이 왔어요	.	어깨동무, 별아 별아~	.	.	.
여름	우리 집은~	.	구슬비	우리 형제, 해야 해야~	소고,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우리 집 은 웃음 바다, 구슬비	소고,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우드 블록, 마라카스
가을	.	추석날, 파란가 을하늘	버스놀이	핑핑~, 잠자리 뽕뽕, 달두달 두 밝다	탬버린, 트 라이앵글	정다운 이웃	탬버린, 트라이앵글
겨울	애국가, 비행기, 사랑의 마음	아름다 운 나라	꼬마 눈사람	남생아~, 파주 다리빼기, 황 해도다리빼기	.	.	.
2학년							
교과서	박자			국악	기악		
	4박	3박	2박		악기 학습	리듬합주	등장악기
봄	나의꿈, 봄비	.	.	앞니 빠진~, 봄아 어디 까지~	소고	앞니 빠 진~, 봄비	소고, 탬버린, 캐스 터네츠
여름	우리집, 달팽이 집, 매미 의 노래, 울챙이와 개구리	.	.	대문놀이, 두꺼비 집 이~, 수박장수	마라카스	우리집, 매미의 노래	우드블록, 소고, 마라카스
가을	우리 동 네~, 가을 바람, 가을은	.	.	목도소리, 장사꾼노래 , 왕도토리	소고	우리 동 네~, 가을바람	트라이앵글, 캐스 터네츠, 작은북, 심 별즈, 소고
겨울	안녕 반가워요, 봄을 기다리며	.	세계의 아침인사( 6/8), 수건 돌려라, 아비뇽~	세계여행, 아리랑, 소리개 떴다	.	.	소고, 카바사, 에그 셰이커, 귀로, 트라 이앵글, 우드블록, 소고, 캐스터네츠

1학년 제재곡은 4박자가 가장 많기는 하나 2, 3, 4박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성취기준 상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어 국악곡도 3, 4학년 음악 교과보다 40% 이상의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악 활동은 소고,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즈 등의 바른 자세를 배우고 간단한 리듬 합주를 시도해보는 활동이 대부분이고 등장하는 악기도 리듬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은 3박자 악곡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나 2학년은 3박자 곡이 나타나 있지 않고, 리듬 합주에서도 일정박에서 시작하여 간단한 리듬 반주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대부분 주요 리듬꼴 치기나 일정박을 치기 위한 기악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3. 성취기준과 학습활동 분석

여기서는 핵심개념에 따른 성취기준을 통해 ‘즐거운 생활’ 내 음악학습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Yang, 2019)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난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교과서 구성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 안에 어떠한 내용의 음악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 1, 2학년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학습활동을 분석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1·2학년 1학기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학습 활동 분석

핵심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1-1	2-1
학교와 친구	[2즐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안녕’ 노래 부르기, 친구 얼굴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
나	[2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	‘앞니 빠진~’ 경험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장단 치기 ‘나의 꿈’ 노래 부르기
봄맞이	[2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	‘봄아 어디까지~’ 노래 부르기와 소고치기, 노랫말 바꾸기

봄 동산	[2줄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줄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노래 부르며 길걷기, '별아 별아 꿀떠라' 노래부르기, '쭉쭉 자라라'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치기
가족과 친척	[2줄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2줄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우리 집은 웃음바다'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하기, '우리 형제'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다양한 가족	[2줄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줄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우리집'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 울동만들기, '대문놀이'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치기, '달팽이집' 노래부르기와 일정박치기, 노랫말 바꾸기
여름맞이	[2줄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줄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해를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 주고받으며 놀이하기, '여름날' 노래를 듣고 느낌을 색, 모양으로 나타내기
여름 생활	[2줄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줄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매미의 노래'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에 맞추어 마라카스 흔들기, 마라카스 만들기, '울챙이와 개구리' 울동 만들기, '두꺼비집이~' 노래부르기, '수박장수' 듣고 따라 부르기

통합교과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계절별 각 8가지로 정해져 1, 2학년에서 균형 있게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 7>의 성취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별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놀이하기', '공연하기', '다양하게 표현하기' 등의 음악과 관련 있는 기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무조건적 통합이 이루어져 음악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성취기준에도 음악 내용을 배치하여 음악 학습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과서 활동은 소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있는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노래에 맞추어 일정박치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리듬악기 연주하기, 노랫말 주고받으며 놀이하기 등이 반복되고 저학년에서 할 수 있는 신체표현이나 이야기 음악 만들기 등의 창의적 표현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 2학년 2학기 성취기준을 통한 '즐거운 생활' 내 음악 학습 활동을 분석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1·2학년 2학기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학습 활동 분석

핵심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1-2	'2-2
우리이웃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정다운 이웃’ 노래 부르고 리듬 악기 연주하기 ‘핑핑~’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
우리동네	[2즐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	‘우리 동네 한바퀴’ 노래 부르고 악기연주하기, ‘목도소리’ 노래부르기와 노랫말 바꾸기, ‘장사꾼 노래’ 노래 부르기
가을맞이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추석날’ 노래 부르기 ‘파란가을하늘’ 노래 부르기	‘가을바람’ 노래부르기와 악기와 몸으로 표현하기
가을모습	[2즐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잠자리뽕뽕’ 노래 부르기 ‘달두달두~’ 노래 부르기	‘왕도토리’ 노래부르기와 윗가락, 소고로 장단치기 ‘가을은’ 노래 부르기
우리나라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7-02] 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남생아~’ 노래부르기 ‘애국가’ 부르 ‘아름다운 나라’ 노래 부르기 ‘과주다리빼기, 황해도다리빼기’ 노래 부르기 ‘비행기’ 노래 부르기	.
다른나라	[2즐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2즐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세계여행’ 노래 부르고와 일정박 치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노래에 맞추어 움직이며 부르기, ‘세계의 아침인사’ 노래 부르기, 세계의 민요 노래 부르고와 악기 연주하기, 율동하며 노래 부르기
겨울맞이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꼬마눈사람’ 노래 부르고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사랑의마음’ 노래 부르고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
겨울나기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2즐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봄을 기다리며’ 노래 부르고와 리듬치기, ‘소리게 땀’ 노래 부르고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1학기도 2학기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을 적절하게 1, 2학년으로 나누어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취기준별로 음악과 관련 있는 통합이라기보다는 1, 2학년을 겹치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취기준 자체가 주제 중심의 서술 방식으로 되어있어 교과와의 연관성이 명확지 않으나 매 제재마다 바, 슬, 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 개별 교과의 수준이나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음악 내용도 주제와 관련된 제재곡을 중심으로 노래 부르기가 대부분이다.

#### 4. 3학년 음악 교과와의 연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과의 주제 중심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 3학년부터 시작되는 개별 교과교육과의 연계적 학습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최근 2015 개정 '즐거운 생활'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신체 운동, 건강, 예술 경험 등의 내용 영역과 3학년 이상의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등의 내용 영역과 연계가 되도록 지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Park, 2015). 따라서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사용지도서(MOE, 2017)에 제시된 3학년 연계 성취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 내용이 어느 정도 연계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학년 1학기 음악 활동에 해당하는 통합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지도서에 제시된 3학년과 연계된 음악과 성취기준을 함께 비교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1 음악 활동과 해당 통합교과 성취기준, 3학년 연계 성취기준의 비교

핵심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2-1	3학년과 연계
나	[2즐01-03]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4]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앞니 빠진~' 경험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와 장단 치기 '나의 꿈' 노래 부르기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봄맞이	[2즐02-01]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2-02]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봄아 어디까지~' 노래 부르기와 소고치기, 노랫말바꾸기 '봄비'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4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가족	[2즐03-03]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우리집'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 율동 만들기, '대문놀이' 노래	음악과 연계 내용 없음

	[2즐03-04]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부르기와 일정박치기, '달팽이집'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치기, 노랫말 바꾸기	
여름 생활	[2즐04-03]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즐04-04]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매미의 노래'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에 맞추어 마라카스 흔들기, 마라카스만들기, '올챙이와 개구리' 울동 만들기, '두꺼비집이~' 노래 부르기, '수박장수' 듣고 따라 부르기	음악과 연계 내용 없음

소주제인 '나' 와 '봄맞이' 에 연계된 '주변의 소리 탐색' 은 주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소음, 자동차 경적 등을 말하나 교과서에는 장단 치기와 소고치기 등이 제시되어 있고, 신체표현에 관한 내용으로 연계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여름' 주제에는 음악 활동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도서에는 음악과 연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2학기 음악 내용을 통해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연계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2 음악활동과 해당 통합교과 성취기준, 3학년 연계 성취기준의 비교

핵심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2-2	3학년과 연계
우리동네	[2즐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우리 동네 한바퀴'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목도소리' 노래부르기와 노랫말 바꾸기, '장사꾼 노래' 노래 부르기	음악과 연계 내용 없음
가을맞이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가을바람' 노래 부르기와 악기와 몸으로 표현하기	[4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가을모습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왕도토리' 노래 부르기와 윗가락, 소고로 장단 치기, '가을은' 노래 부르기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다른나라	[2즐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2즐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세계여행' 노래 부르기와 일정박 치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노래에 맞추어 움직이며 부르기, '세계의아침인사' 노래 부르기, 세계의 민요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 율동하며 노래 부르기	[4음03-01]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4음03-02]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봄을 기다리며' 노래부르기와 리듬치기,	
겨울나기	[2즐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소리개 떴다' 노래 부르기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음악과 연계 내용 없음

2학기는 1학기에 비해 '가을맞이', '가을 모습', '다른 나라' 가 '몸으로 표현하기' 에서 신체표현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율동 하며 행사 및 놀이에 참여하는 등 어느 정도 연관되는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겨울나기' 는 음악과의 연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내 음악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첫째, 교육과정이나 그 성취기준이 목표 도달이 명확지 않은 주제 중심으로 되어있어 집필진의 의도가 대부분 교과서의 방향이나 수준 등을 좌우한다. '주제' 중심은 말 그대로 화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과에 대한 정확한 수준이나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이 여러모로 바뀔 수 있다. 둘째, 음악 활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난해한 그림 악보의 사용과 너무 단순화된 음악 활동의 제시는 대부분 지도서를 찾아야 이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3학년 이상 음악 교과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교과서에 집중한 데 비해 상반된 현상이다. 셋째, 모든 성취기준에 음악 활동이 나타나 있어 통합을 위한 통합이라는 견해를 배제할 수 없다. 성취기준을 분석해보면 음악과 연관이 있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기준도 존재하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음악 활동은 모든 성취기준에서 가창 영역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음악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 다른 교과의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교과의 통합적 의의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Ohn, 2013)는 학습자들이 교과 간의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자신의 경험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어 실생활의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별 교과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학생 스스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주제 중심 통합의 탈 학문적 접근이 교과를 무시하거나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주제나 문제 선정을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지 학문의 전제나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개별 교과와 학문적 특징과 발달상 차이 등 각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는 학자 대부분이 유아부터 10세 전후를 음악 능력 향상의 결정적 시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즐거운 생활’의 음악 내용은 통합을 위한 수단일 뿐 어 린이 음악 성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향후 수행할 연구를 제언하면, 통합교과교육과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나아갈 방향, 개별 교과에 대한 연계성과 교과 특성 등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Gordon, E. E. (2003). *Learning sequence in music: Skill, content, and patterns - A music learning theory*. Chicago: Gia Publication.
- Ham, H. J. (2007). An experimental study on an applic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for music teaching an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31(1), 93-109.
- Jo, S. Y. (2017). The limitations and the potentials of the inten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thematic textbooks for integrated subject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1(2), 119-147.
- Kim, E. J. (2018). Composition and music learning content of "Pleasant Life", a subject in the 2015 revised integrated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6(4), 81-100.
- Kim, S. H. (2018). The integrated curriculum implications of department subjec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4), 21-29.
- Lee, H. S. (1996).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oul, Korea: Sekwang.
- Lim, M. K., Hyun, K. S., Jo, S. I., & Lee, E. (2009). *Music teaching*. Seoul, Korea: Hakji.
- MOE (2011). *Disciplined life, intelligent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Seoul, Korea: Kyohak.
- MOE (2015). *Disciplined life, intelligent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Seoul, Korea: Kyohak.
- MOE (2017). *Spring, summer, autumn, winter subject 1-1, 1-2, 2-1, 2-2*. Seoul, Korea: Kyohak.
- MOE (2017). *Elementary Teacher Guide 'Disciplined Life, Intelligent life, Pleasant life' 1-1, 1-2, 2-1, 2-2*. Seoul, Korea: Kyohak.
- Ohn, J. D. (2013).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elementary integrated subjects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2), 101-121.
- Park, J. H. (2015). An analysi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exploration of reform directions based on integrated subjects of Pleasant Life.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3(4), 103-121.
- Seog, M. J., Choi, E. S., Ham, H. J., & Kwon, D. W. (2010).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music education*. Seoul, Korea: Education Science.
- Yang, S. Y. (2019). Applic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expression section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r 3rd graders to school textbook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581-600.